항구도시 칭다오의 식민지 시대 도시변천과 근대건축형성에 관한 연구

이한석* · † 송석기 · 김나영** · 류 홍웨이***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교수,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군산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

A Study on Urban Transformation and Modern Architecture Development of Qingdao in the Colonial Period

Han-Seok Lee* · † Seog-Ki Song · Na-Young Kim** · Hongwei Lu***

* Division of Architecture & Ocean Space,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Jeollabuk-do 573-701, Korea

** Institute on International Maritime Affairs, National Korea Maritime University, Busan 606-791, Korea

*** Master of Engineer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Gunsan, Jeollabuk-do 573-701, Korea

요 약 : 본 연구는 항구도시 칭다오가 20세기 전반에 근대도시로 형성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칭다오의 근대도시화 과정은 동아시아 항구도시의 공통점을 보여주며 강대국 등 정치적 지배 세력에 의해 4개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독일 점령기 동안에는 칭다오의 구도심 영역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두 번째 일본 1차 점령기 동안 칭다오의 도심 영역은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어 기존 도심의 북쪽으로 금융 및 업무시설이 형성되었고 그 북쪽에서 대항에 이르는 지역에는 공업지역이 넓게 형성되었다. 세 번째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 동안 칭다오는 국제적인 상업과 금융, 휴양도시로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네 번째 일본 2차 점령기 동안 건축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중국 대륙 침략의 관문으로서 칭다오를 활용하고자 했다.

핵심용어 : 항구도시, 칭다오, 도시변천, 근대건축, 식민지시대

Abstract : As a port city, Qingdao had been developed through the 4 stage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irst stage is German Occupation period. In this period, the old downtown of Qingdao was formed and the exist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Qingdao had been established. Second stage is the First Japanese Occupation period. Japanese transformed Qingdao into Japanese city and expanded city area to north and east. Third stage is Northern Warlord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period. In this period, Qingdao had been developed as an international city of world trade and vacation. Forth stage is the Second Japanese Occupation period. Japanese tried to change Qingdao as a military base for the invasion of the northern China.

Key words : Port City, Qingdao, Urban Transformation, Modern Architecture, Colonial Period

1. 서 론

황해에 면한 중국 북동부의 항구도시 칭다오(靑島)는 중국 산둥성(山東省)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도시이며, 가장 큰 항구도시이다. 또한 중국 전체에서는 세 번째로 큰 항구도시에 해당한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칭다오가 현재와 같은 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독

일이 칭다오를 점령하여 조차지¹⁾를 설치한 1897년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의 근대도시로의 변화과정이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경향²⁾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의 항구도시 중 상당수는 근대 초기 외국인의 거주 및 상업지역이 형성되었던 개항도시에서 출발하였다.

이 연구는 독일인들의 조차지에서 출발한 항구도시 칭다오가 현재와 같은 현대도시로 발전하는 배경이 되었던 1897년부터

† 교신저자 : songsk@kunsan.ac.kr 063)469-4788

* 종신회원, hansk@hhu.ac.kr 051)410-4581

** 정회원, nykim@hhu.ac.kr 051)410-5272

*** sivlhw2@hotmail.com

1) 조차지(租借地)란 특정 외국에 대하여 영토의 일부를 할양(割讓)하여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토지를 영구히 빌리되 그 증거로서 해마다 일정의 지세를 납부하는 조계지(租界地)와는 차이가 있다.

2) 칭다오는 조차지에서 출발한 도시로서 부산, 원산, 인천 등이나 상하이 등과 같은 조계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조계지에서도 공동조계와 전관조계 등의 차이가 있고, 토지 취득 방법에 따라 Settlement와 Concession 등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미세한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외국인들의 거주와 상업지역의 형성이 근대적인 항구도시로의 변화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었다는 유사성을 의미한다.

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칭다오의 근대건축형성과정과 도시계획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세기 전반기 칭다오와 관련된 각종 도시계획 및 이 시기에 지어진 주요 건축물을 문헌조사와 현지답사³⁾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현지답사 지역은 20세기 전반기에 칭다오시의 중심영역을 형성하였던 현재의 구도심 지역에 한정하였고 이 지역에 현존하는 근대건축물과 도시구성 등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의 지역적 범위 역시 현 칭다오시의 구도심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하는 1897년부터 일본에 의한 2차 점령이 끝나는 1945년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독일점령 이후 20세기 전반기까지 칭다오의 역사적 배경과 이 기간 동안 칭다오에서 진행되었던 도시계획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칭다오 근대건축형성과정을 도시구성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 시기별로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기능의 공간적 분포와 그 변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근대기 칭다오의 도시계획 변천

2.1 역사적 배경

1860년대부터 극동에서의 군사기지 건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독일은 여러 차례에 걸친 중국 해안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통하여 1897년 5월 칭다오의 서쪽에 면한 자오저우(膠州)만을 최적지로 결정하고 청나라 정부에 자오저우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같은 해 11월 1일 독일 선교사가 살해당하는 쥬예(巨野) 사건을 빌미로 독일은 상하이에 있던 극동함대를 출동시켜 11월 14일 자오저우를 점령하였다.⁴⁾ 그 이후 몇 차례의 조약을 통하여 조차지(Fig. 1 참조)를 확보한 독일은 1898년 9월 이곳을 자유무역항으로 개항하였고 1899년 10월 12일 극동의 새로운 항구도시를 칭다오라고 명명하였다. 이때부터 독일은 칭다오 남쪽 해안의 평지를 중심으로 시가지를 형성하였고 철도와 항구를 건설하여 군사기지와 상업항구로서의 개발을 본격화하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중국 북동부에 대한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산둥에 군대를 상륙시켰으며 같은 해 11월 7일 일본은 칭다오를 점령하였다. 이때부터 일본은 칭다오로 일본인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하여 급속하게 칭다오를 자기들의 도시로 바꾸어갔다. 공업도시와 상업도시로서 칭다오는 일본의 지배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팽창하였다.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등과 체결한 조약 등을 통하여 일본은 산둥을 비롯한 중국 북부와 태평양 군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⁵⁾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1919년 5·4운동이 촉발되었고 그 결과 1922년 워싱턴 국제회의를 통하여 일본은 칭다오의 통치권을 중국 북양군벌정부에 반환하였다.

Fig. 1 Map of the German concession of Kiaochow⁶⁾

이후 칭다오는 1922년 12월부터 1929년 4월까지 북양군벌정부의 통치 하에 있었으며 이 기간 중에도 칭다오는 무역항구로서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후에 1929년 4월부터 1937년까지 국민당 정부가 칭다오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중국은 1930년대부터 40년대에 걸쳐 끊임없는 전쟁의 시기를 겪었지만 이러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칭다오는 전쟁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으면서 1938년 일본군이 다시 칭다오를 점령하기 까지 국제적인 무역도시로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일본은 1938년 1월 칭다오를 재점령하였고 1945년 항복할 때까지 중국 북부 침략의 거점으로서 교통과 공업중심 도시로서 칭다오를 확장시켜 나갔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면서 칭다오는 다시 국민당 정부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2.2 도시계획의 변화

1897년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한 이후 1945년까지 칭다오의 정치적 지배 세력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차례에 걸쳐 변화하였고 그때마다 도시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매 시기마다 수립된 도시계획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으

3) 칭다오 현지답사는 1차(2006.12.15~12.18), 2차(2007.8.19.~8.22), 3차(2007.12.14.~12.17.)에 걸쳐 진행되었다.

4) 青島歷史建築編委會編(2005), 青島歷史建築, 1891~1949, 青島出版社, pp.3~8.

5) W. G. 비즐리 지음, 장인성 옮김(1996), 일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pp.198~204.

6) 앞의 책, p.5.

7)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중국 북부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었으며 또한 1930년 말부터 국민당 군은 홍군을 토벌하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이 내전은 1934년 시작된 홍군의 대장정과 1936년 제2차 국공합작까지 이어진다. 국공합작 이후 국민당 군과 홍군이 일본군과 맞서게 되면서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남경태(1998), 세계사 5000년, 중앙편, 그린비, pp.299~315.참조)

나 도시계획의 변화를 통해 근대기 칭다오의 전체적인 도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독일 점령기(1897~1914)

Fig. 2⁸⁾는 1898년 독일 점령 직후의 도시계획도면으로서 남쪽 해안에 인접하여 도시 중심부가 계획되어 있다. 이 도시계획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시설은 총독부와 교회, 철도역, 병원, 기상대, 군 주둔지 등이고 이외에도 공업지역과 중국인 주거지역, 묘지 등이 확인된다. 남쪽 해안에는 칭다오만 중앙에 바다로 길게 뻗어 나온 잔교(잔차오, 棧橋)를 중심으로 그 우측에는 산(관하이산, 觀海山)을 등지고 총독부가 계획되어 있다. 총독부 앞쪽에는 방사형의 도로가 만나는 광장이 있고 광장을 지나는 동서도로의 양쪽 끝에 교회가 계획되어 있다. 총독부의 양측과 남쪽으로는 주거지역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안에 면한 남측 주거지역의 동쪽에는 호텔과 우체국 등이 있는 시가지가 있고 서쪽에는 철도역과 광장이 계획되어 있다. 철로는 북쪽에서 내려와 서쪽 해안인 자오저우만 쪽으로 곡선을 그리며 잔교 부근의 철도역까지 이어진다. 곡선으로 이어지는 철로의 서쪽으로 공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서쪽 해안에 인접하여 도살장이 있으며 칭다오만에 인접하여 묘지와 군주둔지가 나타나 있다. 주요 시설 중 하나인 관상대는 서쪽에 있는 교회의 북서쪽에 있으며 병원은 총독부 뒤쪽 산 너머와 총독부 서쪽 주택지에 인접해 있다. 시가지 중심에서 떨어져 북쪽에는 중국인 주거지역(다바오다오, 大鮑島)이 계획되어 있다.

1899년에 작성된 Fig. 3⁹⁾의 도시계획도면은 1898년 도시계획도와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잔교를 중심으로 총독부가 위치한 동쪽 지역은 거의 동일하다. 다른 점은 총독부 북쪽에 있는 병원의 북쪽 산(관상산, 觀象山)에 관상대가 계획되어

Fig. 2 Map of Qingdao urban plan, 1898

있다는 점이다. 잔교에서 서쪽 부분은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군주둔지와 관상대의 위치는 동일하나 격자형의 주거지가 서쪽으로 확장되면서 공업지역이 사라지고 교회가 다바오다오의 중국인 주거지역 가까이 옮겨졌다. 자오저우만 가까이 곡선으로 계획되었던 철로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철도역의 위치도 확장된 주거지역의 서쪽에 자리 잡았다. 칭다오와 지난(濟南)을 연결하는 철도는 1904년 6월 1일 운행을 시작하였다. 광장은 1898년과 유사한 위치이나 철도역의 남쪽으로 축소되었다.

Fig. 3 Map of Qingdao urban plan, 1899

Fig. 4 Map of the downtown Qingdao, 1913

Fig. 4¹⁰⁾는 1913년의 칭다오 지도로 독일점령기 동안 확장된 칭다오 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에는 앞의 도시계획도면에서 나타난 칭다오만에서 북쪽 다바오다오의 중국인

8) 青島歷史建築編委會編, 앞의 책, p.5.

9) 앞의 책, p.7.

10) Torsten Warner(1994), Deutsche Architektur in China, Architekturtransfer, Ernst & Sohn, p.194.

주거지까지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서쪽의 소항(샤오강, 小港), 북쪽의 대항(다강, 大港),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 주거지인 남서해안의 타이시전(台西鎮)과 북동쪽의 타이둥전(台東鎮)까지의 영역이 표현되어 있다. 칭다오만에 면하여 형성된 시가지에는 총독부, 철도역, 병원, 군 주둔지, 주거지역, 중국인 주거지 등의 위치가 1899년 도시계획도와 동일하다. 차이점은 철도가 잔교 근처까지 확장되었고 철도역 동쪽 시가지 가로 구획의 형식이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철도와 군 주둔지 서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었고 다바오다오의 북쪽으로 대항에 이르기까지 시가지가 확장되었다. 철로 역시 대항의 제방을 따라 연결되어 있다. 또한 기존 시가지의 동쪽으로 부분적인 시가지와 군 주둔지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미 칭다오는 여름 휴양지로 널리 알려져 칭다오만의 동쪽 해안인 후이취안(匯泉)만을 따라 해수욕장이 조성되었고 별장들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2) 일본 1차 점령기(1914~1922)

Fig. 5¹¹⁾는 일본이 1918년에 수립한 도시계획도이다. 일본은 독일에 의해 형성된 기존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시의 영역을 북쪽으로 확장시켜 나갔다¹²⁾. 1913년 칭다오 지도와 비교하면 대항의 북쪽과 동쪽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Fig. 5 Map of Qingdao urban plan, 1918

있다. 주로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대항의 북쪽으로 소규모의 항구가 추가로 계획되었고 동쪽으로는 새로운 철도역이 계획되었다. 일본의 1차 점령기간 동안 일본은 칭다오에 신사를 건설하고 도시 가로와 공원, 산, 섬 등에 붙여졌던 독일식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등 칭다오를 일본식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3)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1922~1937)

1922년 12월에서 1929년 4월까지 약 6년 동안 북양군벌 정부의 통치기간 중 칭다오에서는 도시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변

화는 없었다. 1929년 4월 국민당 정부의 통치가 시작되고 설훈례(沈鴻烈) 시장의 부임과 함께 칭다오에서는 본격적인 도시확장과 정비가 시작되었다. Fig. 6¹³⁾은 1935년 중국인에 의해 직접 작성된 최초의 칭다오 도시계획도이다. 이 도시계획도를 보면 칭다오의 시가지 영역이 1918년 도시계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시가지는 동남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었다. 기존의 칭다오만과 후이취안만에 면한 시가지의 동쪽으로 타이핑(太平)만과 푸산(浮山)만의 북쪽지역이 모두 시가지에 포함되었고 대항 북쪽의 쓰팡(四方)지역, 창커우(滄口)지역이 포함되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도시 중심의 이전이다. 대항과 타이둥전 사이에 새로운 행정 중심을 계획하여 대항과 대항 철도역, 신행정 중심, 타이둥전과 그 서쪽의 상업지역이 새로운 칭다오시의 중심 영역으로 계획되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새로운 도심과는 별도의 소규모 중심지역을 다수 계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도심의 동남쪽에 새로운 상업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그 남쪽인 타이핑만과 푸산만 지역에는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쓰팡과 창커우 지역에 별도의 상업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지역들 사이에 공원과 산을 비롯한 녹지공간을 배치하면서 행정 중심과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의 거시적인 용도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Fig. 6 Map of Qingdao urban plan, 1935

11) 앞의 책, p.18.

12) 1914년 11월 7일 일본군의 칭다오 점령 이후 12월 28일부터 일본인이 칭다오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01년 경 칭다오에는 약 50~60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였으나 1917년경에는 18,600명이 되었고 1919년경에는 24,500명으로 증가하면서 시가지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다.(靑島歷史建築編委會編, 앞의 책, pp.19~20.참조)

13) 앞의 책, p.29.

4) 일본 2차 점령기(1938~1945)

Fig. 7¹⁴⁾은 일본의 2차 점령이후인 1940년에 작성된 도시계획도이다. 1935년 도시계획도와 비교하면 도시의 전체 영역이 북쪽으로 더욱 확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 중심이 더 북쪽으로 이전되어 쓰팡 지역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칭다오를 지나간 철도를 따라 도시가 확장되면서 북쪽으로 다수의 부도심권이 계획되고 있다.

Fig. 7 Map of Qingdao urban plan, 1940

독일이 칭다오를 점령하기 시작한 1897년 이후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칭다오 도시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요약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Transformation of urban plan in the colonial period

시기	도시계획 내용
독일 점령기 (1897~1914)	1898년 도시계획도 -남쪽 해안에 인접하여 도시 중심부 계획 -총독부, 교회, 철도역, 병원, 기상대, 군 주둔지 등이 계획되어 있음
	1899년 도시계획도 -동쪽 지역은 거의 동일하나 서쪽, 북쪽지역으로 도심부 확장 -서쪽 주거지 확장, 주거지역으로 철도역 이동
	1913년 칭다오지도 -서쪽, 북쪽 지역으로 시가지 확장 -동쪽 해안에 해수욕장 조성
일본 1차 점령기 (1914~1922)	1918년 도시계획도 -기존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북쪽지역으로 시가지 확장 -북쪽 대항을 중심으로 소규모 항구 계획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 (1922~1937)	1935년 도시계획도 -본격적인 도시 확장과 정비 -도시 중심의 이전 -소규모 중심지역을 다수 계획 -행정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을 녹지공간을 배치하여 용도를 구분
일본 2차 점령기 (1938~1945)	1940년 도시계획도 -전체 영역이 북쪽으로 확장 -북쪽으로 다수의 부도심권이 계획

칭다오는 독일과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으면서 근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칭다오는 독일이 점령하기 시작한 이래 1898년에 도시계획이 처음으로 책정되었고 이 도시계획을 기반으로 서쪽과 북쪽으로 확대되었다. 단, 식민지 지배세력이 바뀌면서 도시 중심부 위치는 조금씩 바뀌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칭다오를 지배했던 독일과 일본은 그들의 지배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의 공간영역을 확장시켰고 도시 중심을 이동하여 각자

의 식민지 지배영역을 확고히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칭다오 근대건축형성

1897년에서 1945년까지 칭다오에 지어진 주요 근대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어진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Fig. 8, Fig. 10, Fig. 12, Fig. 14¹⁵⁾에는 각 시기별로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었고 Fig. 9, Fig. 11, Fig. 13, Fig. 15에는 각 시기별 현존하는 대표적 건축물을 나타내었다.

3.1 독일 점령기(1897~1914)

17년간의 독일 점령기간 동안 칭다오에는 공공건축에서 상업, 업무, 학교, 병원, 주거, 생산시설 등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건축물이 활발하게 지어졌다.

Fig. 8은 Table. 2 독일 점령기의 신축된 주요건축물 위치를 나타낸 지도로 넓은 지역에 걸쳐 건축물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요 건축물은 칭다오만에 인접하여 관하이산 남쪽에 집중적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관하이산을 등지고 A06의 독일 총독부가 지어졌고 그 남쪽으로 제국법원을 비롯한 독일 영사관 등이 모여 도시의 지리적이며 행정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총독부 앞을 지나 동쪽으로 관하이산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이수이로(沂水路)와 이수이로에서 남쪽 칭다오만으로 내려오는 장쑤로(江蘇路)의 서쪽으로 고급주택지가 자리 잡고 있다. 장쑤로의 동쪽에는 R03의 기독교회와 S01의 총독부동자학당이 위치하여 당시 독일인들의 주된 생활영역이 이곳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회의 동쪽에서 후이취안만에 이르는 지역에는 별장과 전원주택들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총독부에서 남쪽으로 칭다오만에 이르는 칭다오로의 동쪽으로는 각종 업무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서쪽으로는 H09의 프린스 하인리히 호텔 등의 호텔이 칭다오만을 따라 자리 잡고 있다. 관하이산의 서쪽 기슭에는 고급 주택과 집합 주택, 병원 등이 분포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서쪽으로 R01의 스타일러 선교회 회관과 R02의 성신수도원과 같이 천주교 계통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다. 다바오다오에서 칭다오만으로 이어지는 중산로(中山路)로 좌우에는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그 서쪽으로는 칭다오와 지난을 연결하는 철도가 북서 해안을 따라 이어져 A01의 다강기차역을 지나 A04의 칭다오 기차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Fig. 9는 독일 점령기에 신축된 건축물로 현존하는 이 시기 건축물 중 대표적인 건물을 나타낸 것이다.

독일총독부¹⁶⁾는 이 기간 중에 지어진 가장 대표적인 공공건

14) 앞의 책, p.29.

15) 이 그림들은 1913년에 작성된 칭다오 지도를 필자가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순화한 후 주요 건축물의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16) 독일인 건축가 말케(Mahlke)가 설계하였다.

Table 2 The main buildings built up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연도	시기	공공건축	업무시설	금융건축	상업건축	집회시설	종교건축	학교건축	병원건축	집합주거 및 숙박	단독주택	군사시설	생산업	기타
1897년	독일 점령기													
1898년														
1899년		A01 다강기차역								H01 천주교회 목사		M01 해군제2영부		
1900년		A02 유럽인 갑숙								H02 베를린 전교회	V02 총독부관저택			E01 사오청다오 동대
1901년		A03 우정국		B01 독종은행				S01 총독부동자학당			V03 세무사 주택			
1902년		A04 청다오기차역									V04 갈프케 왕자 별장			
1903년			O01 산동철도광업공사총부			T01 수병클럽	R01 스테일러 선교회	S02 밀월침중학교			V05 총독목사주택			
1904년			O02 칼로윈츠 상업회사				R02 성산수도원							
1905년		A05 독일경찰서			C01 의약상점				D01 독일마전의원		V06 총독부관저택		W01 게르마니아 맥주	E02 소방망루
1906년		A06 독일총독부									V07 디라히센 제브센 주택			
1907년		A07 영국영사관							D02 파버의원	H04 마르키스호텔	V08 베르닐 주택		W02 도살장	
1908년										H05 해변호텔	V09 류쯔산 주택			
1909년										H06 루터 관선	V10 총독관저			
1910년										H07 프리드리히가	V11 디드라이히 주택			
1911년											V12 부세무사 주택			
1912년												M02 바스마르크 병영		
1913년														
1914년			O04 바오루 양행		C02 철다오 상회					H08 철도호텔				
1915년			O05 기독교청년회							H09 프란스 하인리히 호텔				
1916년														
1917년														
1918년			O01 미츠비시 양행											
1919년														
1920년														
1921년														
1922년														
1923년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													
1924년														
1925년			O01 대영연초공사	B01 영국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다오지점		T01 산동해변이화관					V01 타이핑자오로 1호 주택			
1926년				B02 일본증권거래소							V02 왕물자오 고택			
1927년														
1928년			O02 일본다래기선주식회사 청다오지점								V03 사오홍사오원 고택			
1929년											V04 왕수추 고택			
1930년				B03 이취여전정				S01 성공회여학교			V05 타이핑로 티카하시 주택			E01 해변공원
1931년				B04 교통은행 청다오지점	C01 현상이포목점	T02 산동대극장					V06 산하이관로 1호주택			
1932년				B05 조선은행 청다오지점							V07 와세모도 전다 주택			
1933년				B06 청다오물품증권교역소		T03 후베이후난회관					V08 화스러우			
1934년				B07 중국은행 청다오지점			R01 성미카엘성당				V09 남영위인 주택			
1935년				B08 아마히달리은행							V10 영국영사관저			
1936년				B09 대륙은행							V11 산중원 고택			E02 수족관
1937년				B10 중국실업은행							V12 크레이그 주택			
1938년				B11 상하이상업저축은행							V13 왕미뒤 고택			E03 후이런거
1939년				B12 금성은행							V14 조림 주택			
1940년											V15 비일루지 주택			
1941년											V16 리시마인 주택			
1942년											V17 자위관로 6호 별장			
1943년														
1944년														
1945년														

축물로서 당시 청다오의 행정적 중심이면서 도심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식민 통치 권력을 표현하는 권위적인 디자인으로 뒤쪽에 정원을 갖는 ㅁ자형 평면 이었다. 서양 고전주의 양식에 따라 중심성과 대칭성이 강하게 표현되었고 석재로 마감하였다. 제국법원¹⁷⁾은 저층 부분의 석재 마감 등에서 고전적인 디자인 원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 당시 유럽에서 확산되었던 분리파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었다. 독일 경찰서¹⁸⁾와 청다오기차역¹⁹⁾은 높은 탑을 갖는 고전주의 양식의 특징을 보여

준다.

스테일러 선교회관²⁰⁾은 청다오에 지어진 최초의 종교건축물이었다. 이 시기에 지어진 가장 대표적인 종교건축물은 기독교회²¹⁾ 건물이다. 높은 시계탑과 예배당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이 시기 청다오에 지어진 독일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지붕은 붉은 기와로 마감하였고 외벽은 부분적인 석재 마감과 회벽에 밝은 노란색으로 마감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건축물이 총독관

17) 독일인 건축가 한스 피트카우(Hans Fittkau)가 설계하였다.

18) 자오저우 건설관리국에서 설계하였다.

19) 루이스 바일러(Luis Weiler) 등의 독일인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20) 프란츠(Franz) 신부가 설계하였다.

21) 독일인 건축가 커트 로스케겔(Curt Rothkegel)이 설계하였다.

저 건물²²⁾이다. 기독교회에 비해 웅장하고 장식적이며 가장 화려한 건물이었다. 석재로 처리된 디테일 등에서 서양 고전주의 건축의 장식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배면에 결합된 온실은 철과 유리와 같은 근대적 재료가 사용되어 유럽에서 시작된 근대건축의 영향이 점차로 칭다오에도 유입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The main buildings in the first Japanese occupation period

은행 청도지점 건물 등은 앞의 건물에 비해 고전주의 양식이 좀 더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중학교²⁴⁾는 중앙에 사각형 탑을 사용한 산자형 평면의 건물로 중심성과 대칭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중학교의 전체적인 양식적 경향은 독일 점령기 건축과 유사하나 석재의 종류와 사용 방식, 장식적 디테일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14년 이후 칭다오를 점령한 일본에 의해 금융, 업무시설과 학교 등이 건설되었고, 일본인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일본에 의해 칭다오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 역시 서양의 고전주의 양식을 모방한 것이었다. 독일 점령기에 비해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직설적으로 모방한 금융시설 등이 지어졌다. 일본인들에 의한 건축물 역시 대체로 독일 점령기 동안 형성된 칭다오의 건축적 특징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부분적으로 사용된 석재의 재료나 디테일 등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본 중학교와 같은 건축물에서 나타나는 박공벽과 돌림띠 등에서의 거친 자갈이나 잡석의 사용, 기하학적 패턴의 장식, 수직창의 병렬적인 배치 등이 그것이다. 이 시기에 지어진 공공 건축과 금융, 업무시설 등에서는 철근콘크리트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3.3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1922~1937)

Fig. 12는 Table 2의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독일 점령기 동안 별장과 전원주택이 건설되었던 장쑤로 동쪽의 넓은 지역과 후이취안만 동쪽의 타이핑만 지역에 별장과 전원주택이 집중적으로 지어져 넓은 휴양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부대시설로서 타이핑만에는 H02의 등하이호텔이 지어졌고 후이취안만에 인접해서는 E01의 해변공원과 E02의 수족관 등이 지어졌다.

다바오다오에서 남쪽으로 칭다오만에 이르는 중산로의 서쪽으로는 수많은 금융시설들이 지어져 금융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금융시설은 주로 중국계 금융시설로 중국인 건축가에 의하여 설계된 것들이다. 중산로의 동쪽으로는 R01의

성미카엘성당이 지어져 독일 점령기부터 형성된 천주교 관련 시설들의 상징적인 중심이 되고 있다. 중산로 금융지역의 북쪽으로는 철길에 인접한 블록의 남쪽 베이징로(北京路)를 따라 상업시설들이 형성되어 있다.

다바오다오의 북쪽으로 철길에 인접한 블록의 동쪽으로 형성된 관타오로(館陶路)의 좌우에는 업무시설과 금융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B02의 일본증권거래소와 B05의 조선은행 칭다오 지점, O02의 일본다렌기전주식회사 칭다오 지점 등 이곳의 업무와 금융시설은 주로 일본계통의 건물들로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하였다. 남쪽 중산로의 중국계 금융지역과는 구별되는 일본인 중심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북양군벌과 국민당 통치기간 동안 칭다오의 도심 영역은 이전 시기에 비해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북쪽으로는 철길을 따라 중국계통과 일본계통의 업무시설 및 금융시설이 넓게 확산되었고, 동쪽으로는 후이취안만과 타이핑만에 걸쳐 넓은 휴양지역이 형성되었다.

Fig. 12 The location of main buildings in the reign of northern warlord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간은 약 15년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칭다오에서는 매우 활발한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다. 앞의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칭다오의 성격을 반영하여 수많은 금융 시설과 업무 시설이 지어졌고 대표적인 휴양 도시로서 남쪽 해안에는 별장과 전원주택이 지어졌다. Fig. 13은 현존하는 이 시기 건축물 중 대표적인 건물을 나타낸 것이다.

1927년 완공된 일본다렌기전주식회사 칭다오 지점은 이 시기에 지어진 대표적인 업무시설로 부분적으로 서양 고전주의 건축의 장식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형태로 설계된 업무시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증권거래소²⁵⁾는 일본 1차 점령기에 지어졌던 일본계 금융시설과 유사한 고전주의 건축의 입면을 갖는 건물이다. 조선은행 칭다오 지점²⁶⁾은 1920년대 후

24) 일본인 건축가 타다시 미카미(三上貞)가 설계하였다.

25) 일본인 건축가 미즈이 코타로(三井幸次郎)가 설계하였다.

26) 미즈이 코타로가 설계하였다.

반 이후 나타난 건축경향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와 타일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으로 건물의 외관은 매우 단순한 형태로 설계되면서 장식적 경향은 건물의 중앙부와 주출입구, 수평 돌림띠 등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Fig. 13 The main buildings in the reign of northern warlord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중국은행 청다오 지점²⁷⁾, 아마히달리 은행²⁸⁾, 대륙은행²⁹⁾, 상하이상업저축은행은 모두 1934년에 완공된 건물로 중국인 근대건축가 1세대에 의해 설계된 건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앞서 조선은행 청다오 지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식적 경향이 최소화되면서 단순한 외관으로 설계되었고 모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다. 1920년대 후반부터 확산된 모더니즘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물이 등하이 호텔³⁰⁾이다. 장식적 경향이 완전히 사라진 평활한 외관과 형태에 대한 조형성의 추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화스러우³¹⁾는 이 시기 별장 및 전원주택 건축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별장과 전원주택들은 이 건물과 같은 중세 성곽풍의 이국적 취향이나 스페인풍의 주택 경향을 보여준다. 잔교에 세워진 후이란거는 이 시기 중국인 건축가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중국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의 절충경향을 보여준다. 많은 중국 건축가들은 중국전통 건축의 형태에 서양 건축의 구

조 기법과 재료를 통합하고자 하였다.

북양군벌과 국민당이 통치했던 20년대 중반에서 30년대 중반의 시기에 칭다오에는 금융, 업무시설과 별장 및 전원주택이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금융, 업무시설은 전체적으로 그 층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높아졌고 대부분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졌다.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모방한 건축물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금융, 업무시설 등은 장식이 많은 부분에서 생략된 단순한 양식의 건물이었다. 또한 중국 전통 건축양식을 따르는 건축물들이 지어졌다. 외관은 중국의 전통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었으나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재료와 내부 공간 등은 당시의 일반적인 건축물들과 동일했다.

3.4 일본 2차 점령기(1938~1945)

Fig. 14는 Table. 2의 일본 2차 점령기의 상황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타이핑만에 인접한 지역에 별장과 전원주택들이 주로 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시설로서 다바오다오의 동쪽에 R01의 성바울교회가 세워졌고 타이핑만의 북쪽에 불교사찰인 잔산사가 세워졌다.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간은 약 15년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칭다오에서는 매우 활발한 건축 활동이 전개되었다. 앞의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국제 무역항으로서의 칭다오의 성격을 반영하여 수많은 금융 시설과 업무 시설이 지어졌고 대표적인 휴양 도시로서 남쪽 해안에는 별장과 전원주택이 지어졌다. Fig. 15는 현존하는 이 시기 건축물 중 대표적인 건물을 나타낸 것이다.

Fig. 14 The location of main buildings in the second Japanese occupation period

일본의 2차 점령 기간은 약 7년의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짧았을 뿐만 아니라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계속되는 기간으로

27) 중국인 건축가 루첸서우(陸謙受), 우징치(吳景奇)가 설계하였다.

28) 중국인 건축가 류취안파(劉銓法)가 설계하였다.

29) 중국인 건축가 뤼방제(羅邦杰)가 설계하였다.

30) 상하이신위허양행(上海新瑞和洋行)에서 설계하였다.

31) 중국인 건축가 류야오친(劉耀宸)이 설계하였다.

Fig. 15 The main buildings in the second Japanese occupation period³²⁾

건축 활동은 위축되어 있었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별장과 전원주택이 부분적으로 신축되었다. Fig. 15는 현존하는 이 시기 건축물 중 대표적인 건물을 나타낸 것이다. 잔산사³³⁾는 앞 시기의 후이관거와 같이 중국전통 건축과 서양 건축의 통합을 추구했던 당시 중국인 건축가들의 시도를 보여준다. 1940년에 완공된 탄씨주택과 1941년에 준공된 공주루는 이 시기에 지어진 별장과 전원주택의 예를 보여주는 건물들이다. 1938년 이후 일본의 2차 점령기간 중에는 일본군을 위한 군사시설과 타이핑만에 인접한 별장 및 전원주택이 주로 지어졌다. 별장 및 전원주택은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양의 다양한 양식적 경향을 모방한 것이었다.

4. 결 론

20세기 전반기 동안 근대도시로서 형성된 항구도시 청다오는 그 형성과정을 정치적인 지배 세력에 따라 4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4개 시기 동안의 도시변천과 근대건축의 형성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기인 1897년~1914년까지의 독일 점령기 동안에는 청다오의 구도심 영역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었다. 관하이산 남쪽의 청다오만에 인접한 지역에 행정적인 중심이 형성되었고 그 주변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주거지역의 주변에는 학교와 종교시설, 병원 등이 건설되어 독일인의 중심적인 생활 공간을 형성하였다. 철도와 소항이 개발되면서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이 이어지는 교통의 중심지가 서쪽에 형성되었고 그 사이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하였다. 주된 건축 재료는 벽돌과 석재, 목재 등이었고 양식적으로는 서양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었다. 이 시기의 특징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청다오 구도심의 건축적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인의 주거지역은 독일인 지역과 구별되어 북쪽의 다바오다오 지역과 서쪽의 타이시전 지역, 북동쪽의 타이둥전 지역 등에 형성되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14년~1922년의 일본 1차 점령기 동안 청다오의 도심 영역은 북쪽과 동쪽으로 확장되었다. 기존 도심의 북쪽으로는 금융 및 업무시설이 형성되었고 그 북쪽으로 대항에 이르는 지역에 공업지역이 넓게 형성되었다. 독일 점령기에 형성된 건축적 특징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디테일에

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일본은 청다오의 가로와 공원, 산, 섬 등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신사를 건설하는 등 청다오를 일본식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했다.

세 번째 시기인 1922년~1937년의 북양군벌 및 국민당 통치기 동안 청다오는 국제적인 상업과 금융, 휴양도시로서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도시의 전체적인 영역은 북쪽과 동쪽으로 더욱 확장되었다. 도시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용도의 구분이 명확해졌다. 도시의 중심영역을 북쪽으로 이전하는 도시계획이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북쪽으로 공업지역은 더욱 확장되었다. 또한 기존 도심의 북쪽으로는 금융시설과 업무시설이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후이취안만과 타이핑만을 따라 별장과 전원주택, 호텔, 휴양시설들이 지어졌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널리 사용되었고 건축적 양식은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단순해지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축물도 등장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근대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제1세대 중국인 근대 건축가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중국인 건축가에 의한 건축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전통 건축을 재해석하려는 경향 역시 이 시기에 최초로 시작되었다. 건축물의 지붕과 외관의 일부에서 중국 전통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사용하면서 건물의 구조와 재료, 내부 공간 등은 동 시대 대부분의 건축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이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하였고 일부 휴양시설과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에 한정되었다.

네 번째 시기인 1938년~1945년의 일본 2차 점령기 동안 건축 활동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중국 대륙 침략의 관문으로서 청다오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부도심을 형성하는 다핵도시로서 청다오를 구상하였고 이전 시기에 비해 청다오시를 더욱 북쪽으로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타이핑만을 중심으로 여전히 별장과 전원주택이 신축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4개 시기를 거쳐 근대도시로서 성장한 청다오는 20세기 전반기 동안 형성된 근대건축과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청다오 구도심의 공간구성 및 건축적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청다오의 근대건축과 도시의 형성과정에 국한된 연구이지만 향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외국인들의 조계지 또는 조차지로서 출발한 항구도시들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을 비교 연구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19세기 서양인들의 제국주의적인 확장 과정에서 시작된 개항과 외국인 거주 및 상업 지역의 형성은 동아시아 항구도시들이 근대기에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중요한 역사적 변화였기 때문이다.

후 기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61-B0001).

32) 잔산사(앞의 책 p.87.), 탄씨주택(앞의 책 p.212.), 공주루(앞의 책 p.197.)

33) 중국인 건축가 루수쉰(盧樹森)과 자오선(趙深)이 설계하였다.

참 고 문 헌

- [1] 남경태(1998), 세계사 5000년, 동양편, 그린비
- [2] 하시아히로시 지음·김제정 옮김(2005),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모티브
- [3] 한동수 편역(1994), 중국근대건축 I, II, 도서출판발언
- [4] W. G. 비즐리 지음·장인성 옮김(1996), 일본 근현대사, 을유문화사
- [5] 西澤泰彦(2008), 日本植民地建築論, 名古屋大學出版會
- [6] ウォルフガング・パウワー·大津留厚 監譯·森宜人·柳澤のどか 譯者, 植民都市青島1914-1931, 昭和堂
- [7] 青島歷史建筑編委會編(2005), 青島歷史建筑, 1891~1949, 青島出版社
- [8] 李明(2005), 青島老建筑, 青島出版社
- [9] 王占筠(2005), 歐韻青島, 青島出版社
- [10] 魯海(2003), 老樓故事, 青島出版社
- [11] 陸遊·徐曉梅(2005), 青島老明信片, 1897~1914, 青島出版社
- [12] Torsten Warner(1994), Deutsche Architektur in China, Architekturtransfer, Ernst & Sohn

원고접수일 : 2010년 3월 2일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31일

원고채택일 : 2010년 5월 31일